

#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5  
May 2017  
Vol.5 No.5

- 가정의 달 행사
- 뉴멕시코 단기선교
- 청년부 연합아웃팅
- 교구·사역국탐방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



## ■ 가정의 달 행사 특집

5월은 7일 어린이주일과 14일 아버지주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일은 한국 스승의 날에 해당하는 행사를 치르는 진정한 감사의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일은 ICKIDZ를 대표로 소소하지만 아이스크림 한컵에서 신나는 어린이의 순수함만큼의 행사가 있었고 21일은 학부모겸 선생님이 중복되는 확률이 50% 이상인 ICKIDZ에서 셀프격려의 행사가 치러졌다.

맛있는 컵케익과 빨간 장미꽃 한다발,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학부모들의 크고

작은 감사의 선물까지 생각보다 많은 감사와 사랑이 오고 가는 시간이 되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신 분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생님이 없는 분들도 예외가 없을 날이 바로 아버지주일이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자신을 물심양면 돌보는 부모들에게 달아드린 카네이션을 만들기 위해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만나 점심시간을 넘겨서야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주일 역시 1부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챙기기 위해 새벽 단잠을 떨치고 일어나 8시에 교회 입구에 길게 늘어서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예쁜 코사지를 전달했다.

유초등부 어린 학생들 역시 고사리손을 갖고 열심히 만들기 시간을 통해 예쁜 하트메모에 사랑의 마음을 적어 맛있는 찹쌀떡에 정성껏 꽃기를 직접 꽃았다. 다소 어설피른 모습에 도움을 주려하면 “오늘은 저희가 다 하고 싶다” 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귀여운 메모꽃이로 장식한 찹쌀떡 테이블은 식사를 위해 친교실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눈길을 사로 잡기 충분했으며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에게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귀여운 모습에 모든 성도의 마음에 예쁜 개나리꽃이 피어나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4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삶 수료식

## ‘말씀을 삶으로...’ 7주간 훈련 통해 성숙 체험

오월 멋진 날 7일(주일) 2부예배시간에 주안에 교회 ‘벨리채플’에서 한 줄기 가나다란 햇빛은 4명의 곱게 차려 입은 수료자들을 비추이며, 최혁 목사님의 따뜻한 포용과 함께 많은 성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주안에 삶 제11기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육신의 피곤함과 일상의 바쁜 일들을 뒤로한채 오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달려와 수업을 듣고, 준비해 주신 간식과 함께 class 성도님들과 한주 동안의 삶들을 서로 나누며 웃고 즐기는 사이 어느새 하루의 피곤함을 가시고 토론의 얘기장과 주어지는 과제물들을 발표해 가며 각자 개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반복해서 읽게 되는 성경의 말씀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인도하심으로 규칙적 기도 습관을 갖게 되면서 수료자들은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배웠던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며 사탄, 마귀와 싸우며 보내야했던 힘들었던 시간



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 웃을 수 있고 평안함을 만끽하며 하루하루의 일들을 거뜬히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알았기에 기도해 주며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 나누게 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성령님은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공부하기에 다소 어려웠던 연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훌륭히 이수하신 임용자 권사님과 박난영 집사님, 강진령 집

사님, 황금석 집사님(벨리채플), 노춘환 집사님, 문수경 집사님(LA채플)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안에 삶은 주안에교회 평신도 양육과정 중 필수과정이므로 아직 주안에 삶을 이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시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을 더욱 자세히 알아감으로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 오윤선 기자 |

■ 코람데오 청년부 연합아웃팅

## 서먹했던 3개채플 형제자매들 ‘가슴 활짝...’

4월 30일(주일) 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강렬한 햇빛이 머리위로 쏟아지던 날이었지만 코람데오 청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다. 싱그러운 풀밭, 소라빛갈 하늘, 그리고 부서지는 햇살 아래 맑은 공기를 채우는 웃음소리. 그 공원에는 십자가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코람데오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이 연합 아우팅에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날임이 틀림없었다.

비록 채플은 나누어져 있지만 코람데오는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이 연합 아우팅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함께한 자리였다. 9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릴 옆에서 서서 그저 ‘청년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어느새 턱까지 내려온 땀을 손등으로 닦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습은 많은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분들의 섬김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열치열의 점심식사가 끝나고 게임과 액티비티로 아우팅의 제 2막이 열렸다. 림보, 수건 돌리기, 코끼리 코 돌기 등 레트로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게임들로 가득했던 이 시간은 이 아우팅의 하이라이트였다. ‘청년은 청년답게’



라는 문구가 이 아우팅의 주제라도 된듯 밥 먹을 때는 쭈뼛쭈뼛 잘 말을 걸지도 못한 다른 채플 형제 자매에게, ‘안돼! 더 빨리 돌아! 우리 팀이 지고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못해? 혹시 너 X맨이야?’ 라고 자신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육타브로 팀원들과 장난치며 웃고 떠드는 청년들은 영락없는 청년들의, 또 청년다운 모습이였다. 바쁜 일상속 속제 내라 일 하라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위에 올라타 있던 그들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온한 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유가 그들

을 덮는 순간이었다.

이런 의미로 이 아우팅은 매우 특별한 행사였다. 말만 할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벽’이란 것이 세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면서 신나게 놀 때는 그 벽이란 것이 얽아지고 어떨 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한다. 이 아우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합’이었다. 다른 채플, 다른 목장, 다른 연령대라는 벽을 무너뜨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민재 성도 |

■ 뉴멕시코 단기선교

## 뉴멕시코 원주민들에 예수님 사랑 마음을 품고...

EM/ ICY 뉴멕시코 단기선교(6/26-7/1 예정) 를 위한 orientation 이 지난 5/20(토) 일 AM 9시 LA채플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6월 26일부터 6박 7일동안 EM/ ICY 성도들은 지난해 12월 EM 힐링캠프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번 일주일간의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EM/ICY 성도들은 6학년(12세)부터 이번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26일 주일 저녁 플라튼에서 기차로 출발 다음날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인원은 70명 정도이며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은경선교사와 협력하여 현지 나바호 인디언들과 또 다른 주니(zuni)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번 단기선교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현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VBS 그리고 노방전도를 함께할 계획이라고 이성우전도사는 밝혔습니다.

성이삭 전도사는 누가복음 15:3~5절 말씀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먼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이성우전도사님이나 각 채플 사역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영 기자 |



■ 가정의 달 행사 특집

〈1면서 계속〉 벨리채플 친교실 한편에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상을 차리는 드림구역 역시 섬기는 손길에 수고를 더해 더 맛있는 음식과 가벼운 선물가방은 어린이만큼이나 순수한 우리교회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넘치게 하기 충분했으며 드림구역에 속하지 않은 연세 지긋한 일반 교구에 흠어져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섬기는 일 또한 잊지 않는 배려가 돋보였던 행사였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지닌 서글픔을 알 때쯤 아직 내 곁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철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익숙치 않아서 전하지 못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꼭 어버이날이 아니어도 꼭 안아드리며 속삭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 먼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부모님께는 “제가 받은 사랑과 돌봄을 내리 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지난 날을 추억하며 오늘 밤 기도하며 눈물 한방울 흘려도 좋은 기분 좋은 5월의 어느날이었다.



## ■ 교사감사주일

##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꽃다발을

5월 셋째 주일에는 스승 감사 주일로서 사역자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감사와 존경을 한 마음으로 담아 여러가지 준비한 편지, 작은 선물, 음식등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섬겨드리고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더욱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관계 안에서 존경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예배 가운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것이며, 그리고 그 직분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하는 역할이며,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하여 존중하며 따르고 선생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학생으로서의 태도를 전하였다.

몇 주간 학생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담은 카드나 핸드메이드 크래프트, 작은 선물등을 준비하게 함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받는 자리에서만 이 아닌 사랑을 주고 전하는 입장도 되어보게 하여 주는 기쁨과 섬기는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 도움과 참여를 통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나아가 가정들이 받은 사랑을 삶에 감사함으로 적용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었음에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이번 스승 감사 주일을 통해 섬기는 자들로서는 가르치는 자리가 나



의 의지로만이 아닌 하나님으로 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가치가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위치에서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함께 지내는 시간의 은혜와 앞으로의 말씀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의 소망과 소원을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 김명자 집사 |

## ■ 어버이주일 소감

## A Small Gift for a BIG Love

For Mother's Day, ICY prepared carnations for all our hard working moms. We all woke up early and came to church on a bright Saturday morning. Everyone had their own roles to help make the carnations. Some trimmed the flowers others glued on the ribbon and the rest made the ribbons. This was only a small gesture we could show to our mothers, after all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they give to us.

On the day of Mother's Day we all gathered at the entrance, lined up, and handed out the carnations to all our moms. Not only that but we all gathered to give flowers to grandmothers, mothers, deacons, and pastors. This was truly a blessing to see. Giving flowers to the parents was such a small act of kindness. A small fraction of what they give to us on a daily basis. And yet, when we handed out these small red flowers, with petals that opened to a new face, they were surprised to see a bright and thankful smile of a strong and independent women and men. Our youth was able to see such happy faces and thankful hearts of our parents.



Something we can't seem to give enough of to them. We did all of this with a heart filled with inexpressible thankfulness to our moms and for what they did and do for us.

It's amazing what God can do through our youth group. We were all definitely blessed by the families reactions to the small flower. Not only that, we also went out during lunch we handed out coffee to support the New Mexico mission trip and rice cakes as another token of our appreciation. Through the chaos of trying to bustle through the crowded cafeteria and handing out the cakes and coffee, it was a blessing to us all. It was really nice to see all of the adults happy to take the gifts we offered and enjoy them until there

was only an empty plate and a cup full of ice. We learned a lot from that first week of trying to raise funds and we made sure to correct our mistake for the next week. But it being our first time trying to raise money and hand out food, it was helpful.

Another blessing I got to see was the small IC Kids running around handing their mothers the crafts they made during service. It was small and not professionally made however, it seemed to make their mothers so proud of their children and happy to receive such a small but significant gift.

We hope that we can do more for our parents next year and show our appreciation beyond a small red flower. We love you and thank you for the hard work that you dedicate into our future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that your days may be prolonged in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 Exodus 20:12



Leah Chang  
(Valley ICY)



## 존경과 감사의 마음 듬뿍





## 따뜻함이 가득한 한가족



■ 9교구(플러튼채플)

향기로운 마음이 번져가는...

9교구는 향기로운 마음을 가진 교우들이 모인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동식물은 자라야 건강하고 푸르듯이 9교구는 늘 흘러보내고 자라는 교구입니다. 9교구의 뿌리는 7교구(교구장-이영진 피택안수집사, 이명선 피택권사)입니다. 늘 푸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던 7교구가 분가할 수밖에 없도록 차고 넘쳐 권집사님 내외분을 교구장으로 분가해 나온 교구입니다.

구역공과는 1구역장인신 박만규(기도국장 겸임) 피택안수집사님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선택의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공과 가운데에도 선택의 문제가 나와서 모두 돌아가며 함께 토론하고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다른 인생의 여정에서 선택의 문제도 많이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분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독교인이 된 것과 마지막에 주안교회에 와서 최 목사님의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수시로 듣게 해 주신 것이 선택한 것이든 선택된 것이든, 인생 최



고의 선택이었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들은 감사, 행복, 평화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박만규 피택안수집사님은 결론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진지한 공과공부는 1시간 반을 넘겼습니다. 공부를 끝내고 애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구역원들이 한 가지씩 준비한 반찬이 10가지는 되었습니다. 불고기, 곁절이, 잡채, 전에 각종 나물, 흥어회까지 푸짐한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나누며 오가는 대화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 역시 최고의 토피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삶의 뿌리이고 활력소입니다. 아니, 산소입니다. 최 목사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최 목사님을 통해서 주안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생의 좌표를 주시며,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교구 예배는 권 집사님 내외분이 1년 여 전에 이사하신 은퇴자 아파트의 컨퍼런스룸에서 가졌습니다. 장소를 미리 예약해서 준비해주시고 모든 준비와 정리, 뒷마무리까지 애써주신 교구장님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구에도 교구장에 안수집사회장 등등 많은 교회의 직책을 맡았이 수행해주시는 두 분은 주안에 교우들이 모두 존경하는 귀감이십니다. 또 두 구역장님 내외분과 모든 구역원들도 파킹 안내, 예배부, 봉사부, 기도국, 성가대 등등 지면관계상 모두 신지 못하지만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의 땀을 흘리시는 기둥이십니다. | 조성운 기자 |

■ 3교구(밸리채플)

섬김과 봉사의 본보기 되어...

밸리채플 3교구는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1구역은 밸리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경희 집사님이 구역장으로 수고하시고 있고 제 2구역은 Valencia와 Canyon County 지역에 거주하시는 가정들로서 구역장으로는 노재덕 집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구장으로 이필주 장로/양자 권사님이 봉사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3교구의 특징은 교구원 80%이상이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경희 집사는 임마누엘성가대 현충무로, 노재덕집사는 전충무로 수고하였고 노재덕 집사의 부인인 노현순 집사는 성가대 반주자로 벌써 3년째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안에 라이프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고 평신도 선교를 통해 위험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구의 자랑거리라면 무엇보다도 교구장 되시는 이필주 장



로님/이양자 권사님의 헌신이라 하겠습니다. 드림교구에 들어가셔서 편안한 교회생활을 하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교구원들을 섬기시며 수고와 봉사를 아끼시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믿음과 봉사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구원들간의 사랑으로 뽕뽕뭉친 교구, 주님이 보여주신 봉사의 모습을 따르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교구,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에 헌신하는 교구, 이런 점들이 우리 3교구의 자랑거리입니다.

또한 효를 다 하는 구역장님의 헌신으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의 교회 출석과 구역 예배를 위해 일일이 교통을 제공하고 친부모님과 같이 섬기시는 발렌시아 구역장님의 헌신은 그동안 봐 왔던 구역원의 감동이었습니다. 5월 교구예배엔 발렌시아 구역에 강영혜 권사님 84세 생신을 맞이하여 권사님 자녀분들 초대로 생신을 위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자녀분들께선 언어소통의 불편으로 주안에 교회에 출석이 불편하시지만 강권사님의 구역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저녁모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부모공경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마음과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밸리채플 3교구는, 교회 내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본을보이는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을 따라 모든 구역원들이 모두 주안교회의 사랑의 파수꾼이 되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늘 앞장서 달려가실 것을 기대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 오병순 기자 |



■ 예배국(플러튼채플)

■ 기도국(밸리채플)

따뜻한 반깁, 세심한 배려 은혜충만



예배국은 주안예교회의 뿌리이자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그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예배국이 하는 일은 교우들이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교우들을 반갑게 반겨주며, 예배가 끝나고 나면 뒷마무리를 하는 것까지이다.

먼저 1,2부 예배에 맞춰 팀도 1,2부로 나누어져있다. 1부는 김사라 권사와 권남수 집사가, 2부는 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부원들이 봉사한다. 1부 예배국원들은 아침 7시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바로 준비에 들어간다. 먼저 예배 순서지를 점검하며 필요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배정하고 분담한다.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이 준비되고 정돈되어 있는 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교회의 짜인판을 비롯한 도구들을 자리에 비치하며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돌며 자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청소를 한다. 목사님의 강단과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음료수 등도 준비한다. 그리고는 통역기를 점검한다. 하나하나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통역사와 미디어 팀과 협조해야 한다.

2부 부원들은 10시에 모인다. 이들도 역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바로 준비에 들어간다. 1부와 마찬가지로 예배 순서지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점검하고 단상과 목사님의 필요 부품을 점검한다. 1, 2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교우들을 맞이하며 자리에 안내하는 것도 이들이 하는 일이다. 환한 미소로 교우들을 맞이하는 것이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교회의 첫 인상,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에 임하고 있다. 예배 중에도 이들은 목사님과 교우들을 살피며 필요한 일은 없는지 계속 대기한다. 그러다가 필요가 생기면 달려가 도움을 준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교우들이 질서정연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들이 하는 일이다. 교우들이 모두 퇴장하고 난 뒤 자리를 정돈하고 통역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들을 정리하며 뒷마무리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물론 수요일예배 때에도 이들은 같은 일을 한다.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 준비를 하고 예배를 도우며, 예배 뒤에는 뒷마무리를 하는 것까지 말이다.

이들의 수고로 우리는 매주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또 예배 중에 세상에서 가져온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해결책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국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 조성운 기자 |

예배를 위한 기도 뜨겁고 간절



주안예교회 밸리채플 기도국은 기도를 통하여 예배와 목회를 돕는 목적을 가진 봉사국으로서, 국장으로는 이성근 안수집사, 사역자로는 이미란 전도사 그리고 6명의 팀장을 골격으로, 여러분의 기도용사들이 함께 모여, 금요영성집회와 주일예배를 위해 206호실에 모여 활발하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팀들은 주중에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를 통하여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는 주안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며,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가 부어지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 지기를,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다. 때로는 넘쳐 흐르는 눈물로 때로는 가슴 벅차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문을 활짝 여는 기도, 주안의 공동체가 영적 양적 대부흥을 이루어 올곧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세상을 고치기를 구하는 기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한 기도 등 많은 기도제목들을 헌신을 다하여 올려드린다.

한 중보기도의 팀원은 고백한다. 더블 트리플A의 성격에 아무리 혼자 노력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기도 훈련목적으로 기도국에 등록했는데, 기도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매초와 분과 시간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음 맡에 넣어주시고 혀와 입술을 주장하시는 신비를 체험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활발하게 기도국의 기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성근 기도국장님과 팀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국에 조인하기를 부탁하고 있다. 금요영성집회와 주일 1,2부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바로 전 시간에,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문쳐 기도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모든 사단의 길목을 차단하고 모든 방해하는 악의 공중권세를 결박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무장될 것을 소망하고 믿기에 말이다. 또한 주안의 공동체에서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옮겨 붙어져,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도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느 성도님이든 기도제목들 기도국 중보기도팀에 알려주시면, 모든 개인사항을 보존하며 성실히 함께 기도해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 김수정 피택권사 |

칼럼

## 아프리카의 모슬렘화

내 여동생은 흑인 촌에서 20여 년간 장사를 했었다. 동네의 대소사를 다 알고,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결혼해서 애를 가진 것까지 보았으니 동네의 동반장이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몸을 흔들며 대는 덩친 큰 흑인 청년들도 작은 동양 여인 앞에서는 양순한 이웃이었다. “잠 이상한 일이 있어. 흑인들이 감옥에만 갔다 오면 모슬렘이 되는 거야.” “모슬렘이 감옥 선교를 하나? 여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왜 침묵하고 있지?” 십여년전 동생과 나눈 대화의 짙은 여운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말라위에서 감옥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용진 선교사님을 통해 그 답을 얻었다. 원래 범죄학으로 PHD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왜 감옥이 생겼는지를 잘못된 신학에서 답을 찾아 내고,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Westminster에서 신학을 졸업하시고 지금은 말라위 감옥 선교와 어린이 급식과 물지계를 만들어 머리에 이고 산길을 다니던 말라위 사 람들에게 물동이 지계를 만들어 주어 쉽게 산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선교의 활동을 넓히고 계시는 분이시다.

창 9:20-27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에 셈과 야벳이 겹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치고, 얼굴을 뒤로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들



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드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왜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 할 때, 함의 후손 흑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로 흑인이 되었고, 너희 신체와 우리 백인의 신체는 이렇게 다르다고 현장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면서 너희 손바닥이 하얀 것은 그나마 손을 벌려 구걸할 때, 같은 하얀색을 보면서 백인으로부터 긍휼한 마음을 얻게 하려고 손바닥을 하얗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백인 선교사들을 통해 이런 말을 들은 그 흑인들은 일할 의욕을 잃었고,

일을 해 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하는 포기 of 아픔이 그들의 깊은 의식 안에 깔려 있다. 그런 기독교를 너희가 믿어서 백인들의 노예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아니면 모슬렘을 믿고 그런 크리스천과 싸울 것인가? 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이 미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 모슬렘이 되어가는 것에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흑인의 땀으로 지금 물질문명에서 갖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그 흑인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들의 수고에 변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감옥의 탄생도 잘못된 크리스천의 신학에 의해 만들어졌다.

선교사님은 온 세상의 3, 4위의 대기업으로 발전한 감옥을 없앨 힘이 없기에 감옥 선교를 에베소서 4:28 말씀에 의거하여 사역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간 곳이 말라위였다. 었 4:28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선교사님은 이 말씀에 따라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어린 아이들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게 한다. 콩을 볶아 가루를 만들고, 옥수수를 가루로 만들어 어린이 영양제와 철분을 첨가하고 설탕을 많이 넣어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다. 아이들이 죽을 얻어 먹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올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해 내신 사역이란 다. 재소자들은 힘들어 노동을 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로 남을 돕는 사역을 말씀에 따라 살아낸다.

| 이예스터 기자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이번달 발리채를 7교구 구역모임에서 함께 만든 정말 맛있는 해물칼국수를 소개합니다. / 박창신 기자

**재료** 칼국수 생면 2인분, 바지락 ½ 컵, 홍합살 ½ 컵, 감자 1개(중간 크기), 애호박 ½ 개(중간 크기), 파 1단, 양파 ½ 개, 마늘 5 쪽, 국간장 1 table spoon, 후춧가루 약간

**조리법** 1. 바지락 살과 홍합살을 깨끗이 행구어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2. 물 8 컵에 바지락, 홍합, 양파, 마늘을 넣고 냄비뚜껑을 열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센 불에서 중불로 줄여 10-20분정도 끓인 후 양파와 마늘을 건져 내고 거품을 건져내어 깔끔한 맛의 육수로 준비한다. 3. 칼국수 면은 끓는 물에 초벌 삶아 놓아 국물이 탁해지는 것을 막는다.

해물 칼국수  
Handmade Seafood Noodle



4. 감자와 애호박은 두툼하게 채썰어 준비한다.
  5. 파는 4 cm 길이로 썰어 놓고
  6. 2번의 육수를 불에 올려 끓으면 준비한 칼국수 면과 감자, 애호박과 국간장을 넣고 4-5분 끓여 재료들이 익으면 파를 넣고 불을 끈 뒤 상에 올린다.
  7. 식성에 따라 소금과 후춧가루로 마무리 할 수 있다.
- \*\* 김치와 잘 어울리며 저지방식으로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식이다.

■ 여행지 시리즈#1 Redwood National Park



## 수천년 묵묵히 자리지킨 고목들 보면 숙연함까지

예수님과 함께 맞먹는 나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무들의 집산지,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찾아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나무, 레드우드(캘리포니아 레드우드 혹은 코스트 레드우드라 불리움)가 서식하고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북쪽으로는 오리건주 남부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캘리포니아 중부에 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해안가를 끼고 있으며, 습기가 많고 깊게 비탈진 언덕 위에 자리잡고 수백에서 수천년 동안 레드우드 거목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샌프란시스코를 지나 101 FWY 를 타고 계속 북상하여 Leggett 시를 지나고, 3시간 정도를 더 올라가면 Eureka 라는 항구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부터 본격적인 레드우드의 정취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레드우드의 위상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자동차가 나무 속을 관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일명 Tour Thru Tree라고 함), 굵은 나무 전체를 초대형 목각작품으로 새겨 놓은 곳도 있다. 'Avenue of the Giant' 숲 속 길을 드라이브하게 되면 레드우드 숲길은 마치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듯한 깊은 정글의 모습을 보여준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지역 가까이에는 Eureka, Arcata, Orick, Klamath, Crescent City 등의 작은 도시들이 있다. 대부분 이 도시들을 관통하는 크릭과 강들이 있는데 10월부터 내리는 많은 양의 빗물로 인하여 강물이 불어나면 때를 맞춰 코호 연어(은빛연어) 떼들의 회귀현상이 나타난다. 이 연어들은 이 강가에서 태어나서 약 1년정도 유년기를 지내다가 23년 청년기를 바다에 나가 살다가 그들의 수명 마지막 때 즈음에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된다.



자연질서에 대한 창조주의 세밀한 섭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다.

레드우드는 속까지 붉은 색을 띠고 있으며, 겉껍질이 두껍고 단단하여 병충해에도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높이는 평균 100-120m, 지름평균 12m, 무게 평균 40톤에 이를 정도로 현존하는 나무 중 가장 커다란 수목이다. 약 400년정도 되던 성인나무로 자라게 되는데 1년에 1.8m 까지 자란다. 그중 수명이 오래된 나무는 2000년이 훨씬 넘는다.

1800년도 이전까지 이곳에 서식하고 있던 레드우드는 2백만 에이커에 이를 정도로 무성하였지만 1850년 북가주 Trinity River 지역에 불기 시작한 금광개발에 힘입어 인구수가 급증을 하였고, 잠시 불었던 금광 채굴사업이 실패한 후 광부들은 사냥과 낚시 그리고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벌목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이후 이들의 벌목산업은 활발해져 교량 상판, 건축 자재 등으로 전세계로 팔려 나가게 되었다. 심지어는 영국 등 유럽국가들의 왕실에 쓰는 목재 재료로 수출되었다. 이로 인한 레드우드의 존재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지금은 전체의 95% 의 노령 수목이 사라진 멸종위기 상태이다. 국립공원과 주립공원 측에서 멸종위기에 빠진 이 레드우드를 지켜내기 위해 인간힘을

쏟는 이유이다. 그러나 세계2차대전 이후 불어 닥치는 산업부흥으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다가 1968년 Johnson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트레일은 수백년 아니 수천년 동안 나뭇잎들이 길 위에 떨어져 폭신하게 다져놓아 숲 속 트레킹 자체가 힐링의 여정이다.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 바닷가에서부터 형성되는 짙은 안개는 이 레드우드의 생명연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나무가 너무 높아 가지 위까지 물을 빨아 올릴 수 없는데, 나무 꼭대기와 잎사귀에 걸쳐 있는 이 짙은 안개는 나무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귀한 생명의 젖줄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짙은 안개로 트레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이 현상은 레드우드의 귀한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창조주가 허락하시는 섭리 중 하나이다. 여름이면 나타나는 짙은 안개의 공원, 레드우드의 창조주가 자연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바라보게 된다.

레드우드의 독특한 면이 또 하나 있다. 대부분 나무뿌리의 길이는 그 높이만큼 될 법한데, 레드우드의 뿌리는 그다지 길지 않다. 이렇게 커다란 나무들이 쉽게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뿌리들의 네트워크이다. 높이에 비해 길이가 짧지만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를 붙들고 그 오랜 세월동안 수백에서 수천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지탱해 오는 것이다. 이 숲 속 길을 걸으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정글 속보다 더 깊고 짙은 세상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길이와 폭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공기마저 달다. 이 숲속 길에서는... 레드우드가 선물하는 귀한 은혜의 힐링 트레킹이다. | 윤성문 집사 |

주안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초보신자 마음 빼앗은 따스한 배려

사실 저는 믿음의 확산도 없이 교회 출석만 하는 맹목신자(?)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인도로 처음 교회를 방문 할때만 해도 그냥 인사로 한번만 가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뭔가 가슴을 건드리는 느낌... 계속 마음속에 남는 여운을 느끼고 이 기분은 뭘까? 아 이렇게 살아있는 듯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들더군요. '그래 다음주에 한번만 더 와볼까' 로 시작한 왕초보 신자랍니다. 금상첨화라 할까요? 교회 분위기와 교인분들의 따스한 배려와 돌봄이 고스란히 전해지니 주일 교회를 들어설 때면 그저 형식적으로 입만 웃는 인사가 아닌 내 마음의 상태가 온 얼굴로 표현되는 기쁨을 느끼며 본당을 들어서는 나 자신을 보며 그래 이곳이구나!!! 보물 같은 성전을 집앞에 두고 그 먼 곳을 찾아 해매었구나... 지금은 따스한 구역식구들과 구역에 배도 드리고 식당당번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까지 도와주신 전도사님들과 바나바 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걸음마를 배우는 마음으로 한 계단씩 공부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올립니다.



유제니 성도(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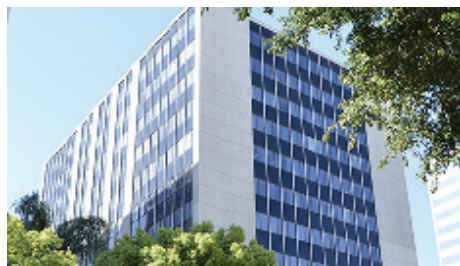
방송설교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2014년 초쯤으로 기억되는 어느날 바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순간 기독교 방송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살짝 잊고 있었던 나를 깨어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몇주 후에 또 우연히 틀어놓은 방송은 똑같은 음성의 말씀이었습니다. 끝나기를 기다리다 주안에교회 최혁 목사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주안에교회에 첫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주기도 문 강해를 하였는데 듣는 순간 눈물은 멈추질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슴에 시원함과 뿌듯함이 회개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알았고, 계속 예배드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은퇴를 하면서 잠시 머물 곳을 Valley에 정하고 보니 교회는 5분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예 거주하기로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며 이제 또 다른 은퇴라는 시간에 믿음의 안정을 찾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결같은 목사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이 없는 성찰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 Vision 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모두 말씀 안에 자신들을 가꾸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나도 함께 그 자리에서 늘 언제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될게요.



서부남 집사(벨리)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벨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6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